

베일에 싸인 생체에너지 오라(Aura)의 실체

오라Aura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Oneness의 빛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하는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오라(Aura)라고 한다. 오라는 일반적인 광학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며, 광속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공간을 전파하는 성질이 있다. 즉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라의 빛깔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소수의 특수한 영적차원을 가진 영시(靈視)능력자에 의해서만 보여지던 오라가 처음으로 관찰된 것은 1911년 런던의 성(聖) 토마스 병원의 월터 킬너 박사에 의해서였다. 그는 색유리로 된 스크린을 통해서 인간의 신체 주위에서 16센티 너비의 광채나 테두리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당시 그는 이 오라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형태와 색깔이 변한다고 주장하며 이것을 과학적인 진단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1939년 러시아 발명가인 키릴리안(Kirlian)에 의해 최초로 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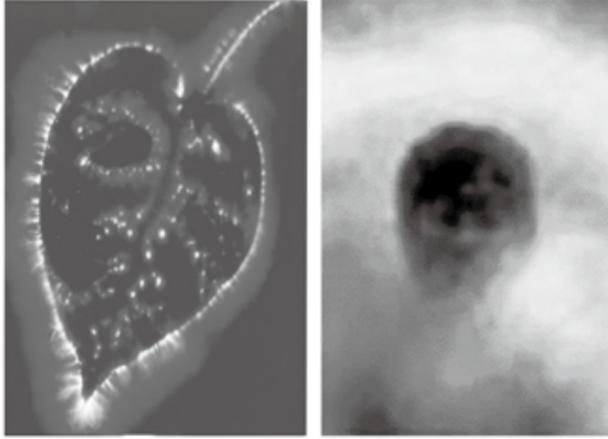
그는 한 병원에서 전기의료를 수리하다가 의료기에 가까이 닿은 피부에서 희미한 빛이 발생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된 뒤 직접 촬영장치를 만들어 많은 실험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생명체는 고주파 고전압 저전류의 상태에서 각 생명체의 성질에 따라 독특한 빛이 발견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키릴리안은 레닌그라드에 사는 외과의사인 마하일 가이킨의 도움으로 오라가 방출되는 부위가 정확히 한방에서 말하는 '경락'과 일치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동양의학에서는 기(氣)가 이동하는 통로를 '경락'이라고 하며 그 경락 중간 중간에 있는 인체 외부와의 교류 장소를 '혈'이라 한다.

하지만 그 실체를 증명해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서양의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동양의학이 오랫동안 미신으로 치부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이 기와 경락의 실체를 증명해낸 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북한 한의사 김봉한이다. 그의 의학적 성과는 먼저 베일에 싸여 있던 경락의 존재를 현미경으로 확인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발생시 '경락'이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것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락이야말로 우주 탄생과 모든 생명현상의 근원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경락은 혈관 속에도 있고 혈관 밖에도 있으며 그 속을 흐르는 생명이너지가 모든 세포 형성, 재생, 치유에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궁극적인 열쇠는 경락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락을 따라 흐르는 생명이너지에 대해서는 근대 전기생물학의 토대를 정립한 해럴드 S. 버어 박사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식물 묘목의 싹에서 성장한 묘목의 모양을 하고 있는 전자장을 발견해 학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이 발견되었다. 즉 인간의 태아에게서 그가



성숙한 상태의 전자장이가 방출된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오라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식물 묘목의 싹에서 발생한 전자장이나 태아에게서 방출된 전자장은 모두 오라이다. 요약하면 동양에서의 기(氣)가 과학적인 용어로는 전자기적 생체에너지로,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오라(Aura) 혹은 오르곤(Orgon)으로, 힌두나 요가에서는 프라나(Prana)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방의 고전 『황제내경(皇帝內經)』에는 “경락이 의(意)를 간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경락을 따라 흐르는 것이 기(氣) 즉 마음이라는 것을 말한다. 김봉한에 따르면 혈관 안쪽에 경락이 있음이 확인된 바, 그러므로 혈관 속 경락을 따라 흐르는 마음의 작용이 혈액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혈액은 인체를 구성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사실 사람의 몸은 100% 혈액으로써 구성되므로 혈액은 곧 인간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9:4, 레위기 17:11, 신명기 12:2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점은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는 생명뿐 아니라 동시에 마음이기도 하다.

피가 곧 마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동양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고 일상에 적용해왔으며 기독교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서양에서도 심심찮게 논의된 내용이다. 17C 생리학자인 갈레노스는 피 속에 영(靈)이 가득차 있음을 말했고 (피의 순환이론)을 제창한 윌리엄 하비 역시 피를 영적인 액체이며 생명의 원리라고 하였다.

오라가 방출되는 부위는 '경락'과 정확히 일치
오라는 동양의학의 '기(氣)', 힌두나 요가의 '프라나'를 지칭
혈관 안쪽에 경락이 있으며 경락은 의(意)를 간직
오라는 생각의 물질이 빛에너지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오라는 생명의 신(神)인 하나님의 빛

◀ 한쪽이 잘려진 장미꽃잎이 여전히 전체적인 오라를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팬텀오라(Fantom aura)는 약 15분간 지속된다.

◀ 오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각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며 마음이 바뀌면 오라의 색깔도 바뀐다.

- 흰색_영적 행로확대, 육체에서 벗어남
- 황금색_용서, 기쁨, 자유, 자비
- 빨강_정열, 생명력, 육체적 활동
- 주황_창조적, 예술적, 영령, 감각적
- 노랑_햇빛, 유연성, 낙천적, 독창적
- 녹색_치유, 카운셀링, 인쇄, 조화, 자긍심
- 파랑_통일, 평화, 은총, 교감, 영적인 사랑
- 남색_깨달음, 통찰력, 투시력, 영적인 계시
- 보라_신비, 깊은 영적 통찰, 영적지도자

사실 피가 모이는 장소를 '피주머니(血臟)'라고 하지 않고 '마음주머니(心臟)'라 부르는 것도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피'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도 (heart)라는 단어는 '심장'과 '마음'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쓰이고 있지 않은가.

또 사고로 인해 많은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분명히 동일한 혈액형의 피를 수혈받았는데 불구하고 소크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피가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같은 혈액형이라 하더라도 그 피의 혼합의 정도에 따라 즉 서로 차원이 다른 혈액(마음)이 갑자기 섞일 경우 충동을 일으키며 혈구들이 파괴되어 얼마든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곧 마음이라는 전제는 '물질이 곧 신'이요, '육이 곧 영'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얼음과 수증기가 H2O로서 동일하듯이 밀도에 따른 상태가 틀릴 뿐 구성물질 자체는 정확히 같다. 그러므로 밀도에 따른 상태를 무시하면 '100% 피로 조성된 인간은 100% 마음 그 자체'이다. 현대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에너지가 육안으로 보기 좋을 만큼 혹은 접촉하기 쉬울만큼 치밀한 간격으로 모여있는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은 물질과는 달리 자유로운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물질은 마음이며, 모든 마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던 물질이다. 그러므로 요즘 흔히 거론되고 있는 심신상관(心身相)은 조금 모자란(?) 학문이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질이나 마음이 모두 에너지의 한 형태임을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빛에너지인 '오라'는 과연 무엇일까? 쇠의 냄새를

맡아 보면 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고무에서는 고무 냄새가 나며, 흙에서는 흙냄새가 난다. 이는 다름아닌 물질 자체의 원소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입자가 후각에 와 닿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갓난 아이에게 젖내가 나고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서 나는 피로 맡아보면 피의 냄새가 난다. 또한 화를 내는 사람 입에서는 단내가 나며 노인들에게서는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이것도 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의 물질이 방출되어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냄새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아주 강하게 품었을 때 뿐이며 대개의 경우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좀더 영적 차원이 올라간 사람의 경우에는 냄새로 상대방의 미묘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구세주 조희성님의 말씀을 예로 들면,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시커먼 장미구름 같은 것이 몽게 몽게 피어나면서 구린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고 하시며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노르스름한 안개와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 몸에서는 뱀냄새 같은 비린내가 난다고 하신다.

여기에서 시커먼 장미 구름이라든지 노르스름한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방출되는 일종의 '오라'이다. 즉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와 달리 오라는 생각이라는 물질이 빛에너지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바뀌면 냄새 뿐 아니라 오라도 바뀐다.

피가 곧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흔히 혈액형에 따라 일정한 성격이 있음은 인정한다. 사실 피의 성향이 마음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혈액에 유사한 성격 경향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오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으면 황금색의 오라가 나온단듯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갈색의 오라가 나온단듯이 하는 것이 그러하다.

성경이건 불경이건 모든 종교의 경전은 서로 다른 두 신(神) 혹은 두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어둠의 신이며 분열과 죽음의 신인 마귀(마귀)며, 다른 하나는 빛의 신이요, 통일과 질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신인 하나님(부처님)이다. 그렇다면 죽음과는 완전히 별개인 빛에너지인 오라는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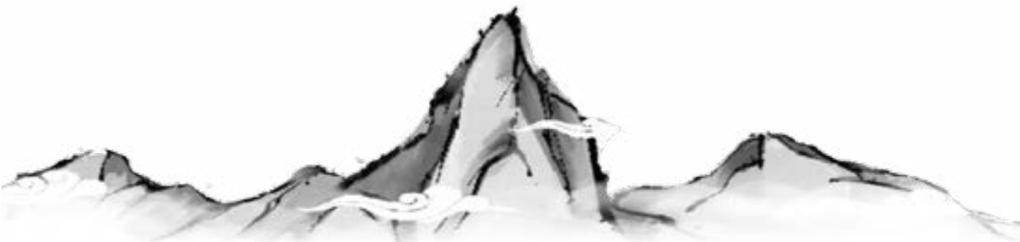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Oneness)'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오라'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학문과 종교를 초월한 단어이다. 말 그대로 인류 전체, 나아가 온 우주 만물 속에 공통적으로 깃들어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얼음과 수증기를 비교해봤을 때, 하나는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볼 수 없지만 동일한 원소 H2O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컨대 오라는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온 우주 전체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인 것이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92회

선천하도 후천낙서는 쇠병사장(衰病死葬)이나 중천인부(中天印符)는 쇠병사장 퇴거(退去)로다

松家田(二) 송가전

易理乾坤循環之中 역리간곤순환지중
三變九復 삼변구복도라오네
儒佛仙三理奇妙法 유불선삼리기묘법
易理역리로서出現출현하니
少男少女先天河圖 소남소녀선천하도
義易理氣造化法 화역이기造化법에
儒道正明人屬 유도정명인속하야
七十二賢咏歌時調 칠십이현가시조
乾坤南北天八卦 건남곤북천팔괘로
天地否泰春生之氣 천지비태춘생지기
八卦陰陽相配故 팔괘음양상배고로
相生之理禮義 상생지리에의로다



하나니 천지비태(天地否泰)로서 춘생지기(春生之氣) 즉 봄에 만물이 소생하는 운기를 나타내는 괘이니라. 천팔괘는 팔괘와 음양이 서로 짝이 맞으므로 상생의 이치가 있음에 예의 바른 세상이 되느니라.

八卦磨鍊義易法 팔괘마련의역법이
四時循環 사시순환되오므로

胞胎養生春生發芽 포태양생춘생발야
衰病死葬不免 쇠병사장불면이요
喜怒哀樂四時循環 희로애락사시순환
一去一來躡次 일거일래전차로다
先天河圖已去 선천하도이거하고
後天洛書到來 후천낙서도래하니
中男女後天洛書 중남중녀후천낙서
周易理氣變化法 주역이기변화법이
佛道正明地屬 불도정명지속하야
五百盡漢阿彌陀佛 오백진한아미타불
離南坎北地八卦 리남감북지팔괘로

火水未濟夏長之氣 화수미제하장지기
八卦陰陽着亂 팔괘음양착란하야
相生變爲相克 상생변위상극이라
八卦磨鍊周易法 팔괘마련주역법이
四時動作一般 사시동작일반으로
浴帶冠旺夏長之理 욕대관왕하장지리
衰病死葬如前 쇠병사장여전으로
溫熱涼寒四時到來 온열랑한사시도래
晝夜長短躡次 주야장단전차로다

팔괘를 처음 그은(始劃八卦시획팔괘) 복희씨의 복희역의 윤행법은 사시(四時)가 순환되므로 아이를 배고 낳아 기르는 포태양생(胞胎養生)으로 봄에 만물이 소생하고 썩어 트는 이치이지만 노쇠하고 병들고 죽어 장사지내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희로애락과 사시의 순환이 번갈아 오고 가는 것이 그 운행의 법도인 것이니라.

선천하도의 운이 지나가고 후천낙서

가 도래하니 중남중녀가 주장하는 후천낙서는 주역의 이기(理氣)의 변화법(變化法)으로 후천 불도는 바르고 밝은 땅의 도리에 속하니 오백나한(아라한)을 배출하였고 아미타불을 불렀느니라. 후천 팔괘도의 이남감북(離南坎北)은 지팔괘(地八卦)로서 화수미제(火水未濟)괘이고 여름에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기운(氣運)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한편 팔괘의 음양이 서로 짝이 틀려 난잡(亂雜)하니 상생(相生)이 상극(相克)으로 변하느니라. 후천팔괘로 마련된 주역법은 사시(四時=춘하추동)가 돌아감은 선천과 같으니라.

욕대관왕(浴帶冠旺) 즉 태어나서 청장년으로 성장하는 것은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의 이치와 같지만 쇠병사장(衰病死葬) 즉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장사지내는 것은 선천과 같이 피할 수 없으며 온열양한(溫熱涼寒) 즉 따뜻

하고 덥고 서늘하고 추운 춘하추동 사시가 돌아오며 밤과 낮이 길고 짧아지는 것은 후천의 윤행법도 때문이니라.

後天洛書又已去 후천낙서우이거로
中天印符更來 중천인부갱래하니
長男長女印符中 장남장녀인부중에
天正易理奇造化法 천정역리기造化법이
仙道正明天屬 선도정명천속하야
一萬二千十二派 일만이천십이파로
坤南乾北人之八卦 곤남건북인지팔괘
地天泰卦人秋期 지천태괘인추기로
八卦陰陽更配合 팔괘음양상배법에
相克變爲相生 상극변위상생일세

낙서의 후천도 이와 같이 지나가고 중천인부(中天印符)의 운이 다시 돌아오니 장남장녀를 상징하는 손전 계룡의 중천운(中天運)에는 하늘의 정역이 있고 기기묘묘한 인부(印符)의 이기(理氣) 조화법이 있으니 선도(仙道)는 바르고 밝은 하늘의 도에 속하여 일만 이전에 십이파(十二派)로 나오느니라. 곤남건북(坤南乾北)은 인지팔괘(人八卦)로서 지천태괘(地天泰卦)를 이루는데 인생을 추수하는 시기(時期)라 팔괘와 음양을 다시 짝을 맞추어 놓으니 상극이 변하여 상생으로 되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010-3912-5953가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림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